

연구논문

전문계고 졸업자의 진로준비행동 잠재프로파일 분류와
고등학교에서 받은 진로지도의 관련성 검증*

Identifying Latent Profiles in Vocational Preparation Behaviors of Vocational Highschool Students and Testing Its Relationship with Vocational Education

김소영^{a)} · 홍세희^{b)}

Soyoung Kim · Sehee Hong

본 연구의 목적은 전문계 고등학교 학생의 진로준비행동을 진로준비행동의 하위문항의 응답패턴을 고려하여 잠재프로파일을 나누고, 각 집단과 고등학교 재학 당시 받은 진로지도 및 개인변인과의 관계를 알아보는 것이다.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고졸자 취업진로조사(HSGOMS) 자료를 사용하여 잠재프로파일 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의 결과 취업을 바라는 전문계 고등학교 졸업자는 응답패턴에 따라 ‘소극적 정보탐색 집단’과 ‘적극적 정보탐색 집단’으로 분류할 수 있었다. 선배나 전문종사자의 강연을 듣거나 진로상담을 경험한 학생들은 적극적 정보탐색 집단에 속할 확률이 높게 나타났고, 학교에서의 직업정보제공을 받은 적이 있는 학생일수록 소극적 정보탐색 집단에 속할 확률이 높았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청소년의 진로준비행동에 대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으며 학교에서 지속적인 상담프로그램과 다양한 정보수집 활동에 적용 가능한 지침을 제공한다.

주제어: 전문계고, 진로준비행동, 진로지도, 진로교육, 잠재프로파일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dentify latent profiles in vocational preparation behaviors of vocational highschool students and to test its relationship with

* 이 연구는 2012학년도 고려대학교 사범대학 특별연구비 지원을 받아 수행되었음(This research was supported by the College of Education, Korea University Grant in 2012.)

a) 고려대학교 교육학과 박사과정

b) 교신저자(corresponding author): 고려대학교 교육학과 교수 홍세희.

E-mail: seeehong@korea.ac.kr

vocational education and individual backgrounds on determining latent profiles. To accomplish the research purposes, latent profile analysis was conducted with the High School Graduates Occupational Mobility Survey(HSGOMS) panel data. Results showed that there were two types of latent profiles in vocational preparation behaviors: 'passively-exploring group' and 'actively-exploring group'. It was also found that students who actively attended vocational lectures and/or experienced career counseling showed a higher tendency to belong to the actively exploring group. However, students who were given vocational information from school showed a higher probability to belong to the passively-exploring group. The findings of this study can be utilized as preliminary materials for guiding career preparation of adolescents especially for vocational highschool students.

Key words: vocational highschool, vocational preparation behavior, vocational education, latent profile analysis

I. 서론

베이비붐 세대까지만 해도 전문계(구 실업계) 고등학교는 산업현장에 투입되기 직 전 전문기능인을 양성하고자 설립되었으나, 현재는 설립당시의 목적만을 강조하기에는 어려운 실정이 되었다. ‘진학’과 ‘취업’ 중 전문계 고등학교의 교육목표가 무엇인지에 대한 정체성 논란이 생겼으며, 저조한 성적 때문에 인문계고 진학이 어려운 학생이 가는 학교라는 인식이 퍼지면서 학생들이 전문계고 진학을 기피하거나, 인문계 고등학교에 비해 두드러진 중도 탈락비율을 보이는 등 전문계 고등학교는 학교운영상의 어려움이 많아졌다(고재성 외 2008). 최근 저출산의 영향으로 인한 고등학교 입학자 감소와 대학 정원 확대가 맞물린 학력과잉과 심각한 청년실업이 사회문제가 되자 정부에서는 직업교육 선진화 방안을 발표하였다(교육과학기술부 2010). 교육과학기술부에서는 마이스터고, 특성화고 지정 등 전문계고 취업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지원과 이에 대한 평가·관리 제도를 강화할 것이라 했고, 기업에서도 전문계고 출신 채용을 확대하는 등 전문계 고등학교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전문계 고등학교 학생의 진로가 대학입시와 취업준비로 다양하기 때문에 학생들의 진로지도에 대한 수요가 높아

진 것에 비해, 학교현장에서는 이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으므로(오호영 외 2007) 전문계 고등학교의 진로지도와 그 영향력에 대한 관심이 필요한 상황이다.

Super에 의하면 진로발달은 성장기, 탐색기, 확립기, 유지기, 쇠퇴기로 이어지는 생애전체에 걸친 과정이며, 개인과 환경의 상호작용으로 인한 결과라고 본다(Super 1953). 고등학생은 Super 이론에서 탐색기 중에서도 전환기 단계에 있으며 이 시기의 청소년은 학교생활, 여가활동, 아르바이트 등을 통해 직업탐색을 수행한다. 15~19세 청소년에게 있어서 직업에 대한 고민(10.2%)은 성적과 적성에 대한 고민(55.3%)과 더불어 많은 학생이 심리적 갈등을 겪는 문제이다(통계청 2011). 진학지도를 중심으로 진로지도를 하면 되는 인문계 고등학교와는 달리, 진학을 원하는 학생과 졸업 후 취업을 바라는 학생으로 양분되는 전문계 고등학교의 특성상, 전문계 고등학교에서는 재학 중에 진로문제를 결정해야 하는 경우가 다른 계열 고등학교에 비해 많다(김효진·장윤옥 2011). 학업이나 진로문제로 고민하는 학생을 위해 전문계 고등학교에서는 진로지도에 관심을 기울이게 되는데, 이때 어떤 진로지도방식이 학생의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돕는지 살펴보고 학교현장에서 좀 더 효과적인 방식의 진로교육이 이루어져야 하는지 알아볼 필요가 있다.

진로준비행동을 다루는 기존의 연구에서는 변인간의 관계를 다루는 것이 대부분이었고, 진로준비행동의 수준이 어느 정도인가에 따라 다른 변수와의 관계를 살펴보는 '변수 중심적 접근'(variable-centered approach; Bergman & Magnusson 1997)을 취할 반면, 본 연구에서 취할 접근법은 '사람 중심적 접근'(person-centered approach) 방법이다. 변수와 변수 사이에 어떤 관계가 있는지에 관심이 있는 기존의 변수 중심적 접근과는 달리, 사람 중심적 접근은 모수 추정값에 따라 몇 가지 유형으로 분류되는지에 초점을 둔다.

본 연구에서의 종속변인은 전문계 고등학교 졸업자의 고등학교 재학 당시 진로준비행동을 5점 척도로 측정한 자료로, 이렇게 종속변수가 연속변수로 간주될 때 도출되는 잠재집단을 잠재프로파일(latent profile)이라고 부른다. 종속변수가 이분변수일 때 도출된 집단은 잠재계층(latent class)이라고 한다. 그러나 연구자에 따라서 잠재프로파일과 잠재계층을 구분하지 않고 모두 잠재계층이라 부르기도 한다. 청소년들은 진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다양한 행동을 하는데, 여러 가지 행동을 하나의 구인으로 간주할 경우 각각의 활동에 대한 응답패턴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정보를 잃게 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다양한 진로준비행동의 하위유형 즉, 잠재프로파일을 분류하여 각

잠재프로파일별로 어떤 특징이 있는지 알아보고, 고등학교에서 받은 진로교육 경험 및 개인관련 변인과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 검증하여 전문계 고등학교의 진로교육에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한다.

II. 문헌고찰

1. 진로준비행동

진로준비행동(vocational preparation behavior)은 개인이 설정한 진로목표를 이루기 위해 구체적으로 실행하는 다양한 활동을 의미한다(조성연·이선순 2006). 진로성숙도나 진로결정수준과 같은 심리적, 인지적 접근을 취하는 구인과는 달리 행동적 측면에 초점을 맞춘 개념이며(강원덕·안귀여루 2010), 직업세계에 대한 정보수집 활동, 도구준비, 목표달성을 위한 노력의 세 차원으로 나눌 수 있다(이예진·이기학 2010). 정보수집 활동은 개인이 스스로 관심이 있는 직업세계에 관한 전망, 필수요건, 현황 등을 조사하는 활동이며, 이를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수집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교재나 자격증을 포함한 도구준비는 각 직업에서 요구하는 자격증을 포함하여 진로목표에 도달하기 위한 각종 도구를 마련하는 행위를 말한다. 목표달성을 위한 노력은 진로에 관한 정보를 찾아보고 도구를 마련하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시간과 노력을 들이고 있는지에 대한 것으로, 진정한 진로준비행동이라고 볼 수 있다(조태영·이민순 2009). 또한 진로준비 행동은 진로발달의 연속선상에서 이해해야 하는 것이다. 인지·심리적인 진로발달이 이루어지면 자신의 미래 진로에 대한 결단을 내리고 그 결과로 진로목표가 생기면 이를 이루기 위해 실천적 행동을 하기 때문에, 개인이 과거에 생각하고 경험했던 것을 토대로 이루어지는 것이다(이현림 외 2008). 청소년이 처한 상황에 따라 진로준비행동이 활발하게 일어나는 시기에는 개인차가 있지만, 보통 학업의 과정에서 실재직업세계로 이행하는 단계에서 이루어진다.

그동안 진로발달에 관련해서는 진로성숙도나 진로효능감 등 정의적 측면에 대해서 많은 연구가 이루어진 반면, 이를 실질적 행동으로 옮기는 것에 대한 연구는 심도 있게 이루어지지 못했다(어윤경 2010). 청소년의 진로발달을 연구하기 위해서 연구자들은 진로결정 또는 미결정에 주목하거나(Winer 1992; Slaney 1988), 진로태도나 적성·흥미 및 성격요인(이현정·김기석 2008; Walsh & Lewis 1972)같이 진로에 대한 심리

적 영역이나 인지과정에 많은 관심을 기울였다(김계현·김봉환 1997). 그러나 진로에 대한 심리적 구인에서 높은 수준을 보인다 하더라도 구체적인 행위가 수반되지 않으면 진로문제와 관련하여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하기 어려우며(강란혜·이미정 2011; 송현심·홍혜영 2010; 조태영·이민순 2009), 진로에 관한 정의적 측면은 행동적 측면을 야기하는 직접적 원인이 되지 않는다(어윤경 2010; 박고운·이기학 2007; 김봉환 1997; Phillips & Paziienza 1988).

진로준비행동과 유사한 개념으로는 취업준비행동 (employment preparation behavior) 과 직업탐색행동(job search behavior)이 있는데, 목적이 취업에 있다면 취업준비행동이라 하고, 정보탐색의 범위가 취업 후 적응과 관련된 것 까지 포함되면 직업탐색행동이라고 한다(어윤경 2010; Blau 1993), 미래 직업에 대한 직업탐색의 강도가 높을수록 취업속도와 취업가능성이 빨라지므로(Saks & Ashforth 2002; Kanfer et al. 2001; Blau 1993), 진로상담분야에서도 행동과정에 주목하는 상담연구들은 결과적으로 어떤 진로를 선택하는지보다 진로선택의 과정 즉, 내담자가 미래진로에 대한 정보를 어떻게 입수하는가에 초점을 둔다(Crites 1981). 진로준비행동에 관한 선행연구에서 얻을 수 있는 일관된 결론은, 개인이 설정한 직업목표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행위 차원에서 적극성을 보여야 한다는 것이다(이제경·김동일 2004).

2. 진로준비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

1) 고등학교의 진로교육

진로개발은 청소년으로부터 성인, 노인에 이르기까지 평생에 걸친 과제로 국제적·정책적으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해 가는 추세이며(OECD 2004), 평생교육이 시대의 흐름으로 자리잡음으로써 개인의 삶 자체가 진로개발을 위한 하나의 프로젝트가 되었다(Fenwick 2001). 청소년은 학교에서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기 때문에 진로교육은 학교교육 체계에서 해결해야 하는 중요한 과제 중 하나이며(교육인적자원부 2007), 학생들이 진로교육을 통해 자신의 미래에 대한 구체적인 설계를 하도록 돕는 것은 학생 지도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김희수 2007). 이러한 시대적 요구에 따라 현재 전문계 고등학교 학생들은 ‘진로와 직업’교과목, 전문가나 선배의 강연, 비연속적으로 이루어지는 직업정보 제공 및 안내, 진로관련 검사, 현장학습이나 견학 등 직업체험, 진로상담 등의 방법을 통해 학교에서 행해지는 진로교육을 받고 있다(임언 외 2008).

〈표 1〉 현재 시행되고 있는 진로교육 방법의 종류와 한계

		종류	예	한계
교과를 통한 방법	1	독립된 교과목	진로와 직업(선택과목)	전문성 부족 지속성 부재
	2	특정 교과에 한 단원으로 편성	도덕, 사회의 한 단원	교과연결 미흡 내용 부실
	3	범 교과 관점에서 통합	수학, 과학, 역사에 포함	체계적 지침 부족
교과 외 방법	4	창의적 재량활동 및 특별활동을 활용하는 방법	직업체험 진로 관련 적성검사 상담활동	시간제약 일회적 비체계적

현재 시행되고 있는 진로교육은 크게 교과를 통한 방법과 교과 외 방법을 활용한 방법으로 나눌 수 있으며, 교과를 통한 방법은 독립된 교과를 통한 방법, 특정 교과에 한 단원으로 편성하는 방법, 여러 교과에 통합하는 방법으로 나눌 수 있다. 교과 외 방법을 활용한 방법은 창의적 재량활동이나 특별활동을 활용하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으며 〈표 1〉은 이 네 가지 방법에 대해 정리한 것이다.

전문계 고등학교에서 독립된 교과를 통한 방법은 교양일반선택 과목으로 ‘진로와 직업’ 교과목이 있으며 전문계 고등학교 학생의 절반 정도가 선택했음에도 불구하고 교육내용이나 교수-학습에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최동선 2006). 진로와 직업 교과의 경우 전공교사 없이 진로 이외의 다양한 과목을 전공한 교사들에게 돌아가면서 배분되기 때문에, 교사들은 이 과목을 ‘남는 시간을 이용하는 데 유용한 교과’로 여기고 있다(오호영 외 2007). 따라서 단기 행사성 교육이 되거나 재량시간을 이용하여 간헐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진로교육이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기 어려운 환경에 있다. 특정 교과에 한 단원으로 편성하는 방법은 얇은 수준의 지식전달에 그칠 가능성이 많아서 잘 활용되는 방법은 아니다. 이 방법을 사용하는 예로는 사회나 도덕 과목의 한 단원에 교육내용으로 반영되어 있는 것이 전부인데 다룰 수 있는 내용이 적을 뿐만 아니라 해당 교과와의 연결고리가 미흡하여 교과의 일부 단원으로 넣는 것이 쉽지 않다. 여러 교과에 통합하는 방법은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보급단계에 있지만 영국, 호주, 뉴질랜드, 캐나다의 일부 지역에서 시행되고 있는 방법이다(임언 외 2008).

교과 외 활동을 통한 교육은 특별활동이나 재량활동 시간을 활용하여 진로체험활

동, 상담, 적성·흥미검사 등 다양한 시도를 하고 있으나, 제한된 시간에 여러 가지 활동을 운영해야 하는 현실적인 제약으로 일회적인 활동에 그치는 경우가 많다(조성심·주석진 2010). 또한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진로지도 방법은 진로관련 검사를 실시하는 데 치우쳐 있다. 학교에서 검사를 여러 번 실시했어도 이에 대한 결과를 제대로 받아보지 못했다는 사례와 검사문항의 길이가 너무 길기 때문에 지루하다는 이유로 검사를 완료하지 못했다는 사례(임언 외 2008)를 고려하면, 진로·적성검사 실시가 학생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까지는 그것에 대한 관리가 부족하다는 것을 시사한다. 현행 진로교육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서는 직업체험을 중심으로 진로교육을 실시하거나(조성심·주석진 2010) 다양한 교과와의 관련을 맺으며 통합교육으로 실시될 때 교육적 효과가 크게 나타날 것이라는 학자들의 의견이 있다(홍후조 2008).

2) 개인특성 및 가정배경 요인

학교에서 받은 진로교육경험의 종류와 진로준비행동의 관련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진로준비행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주요변인을 설정하였다. 청소년의 진로준비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개인특성 요인과 가정배경 요인이 있다. 먼저, 진로준비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특성 요인에는 성별, 취업목표 여부, 고등학교성적이 있다. 진로준비행동에 대한 성별의 효과는 연구대상에 따라 서로 다른 연구결과가 나타나지만, 여성과 남성은 진로발달에 있어서 서로 다른 경험을 바탕으로 하고(Betz & Hackett 1986), 전문계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 의하면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진로준비행동이 더 활발하다(최영미 1998). 진로목표설정은 진로발달에 영향을 미친다(Lent et al. 1994). 자신이 앞으로 어떤 일을 할 것인지 결정하고 준비하는 것은 청소년 시기에 이루어야 하는 발달과업 중 하나로서 청소년에게 성취해야 하는 과제로 작용하기 때문에(김경옥 2009), 고등학교 재학 당시 취업목표가 있었던 학생은 진로준비행동에서 더욱 적극적일 것이라는 예상을 할 수 있다. 또한 고등학교 성적 등의 교육적 성취는 청소년의 직업지위나 진로관련 구인에 대한 중요한 예측변수가 될 수 있다(김희자 2008).

청소년을 둘러싼 사회·환경적 요인은 청소년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자원이며, 가정과 학교에서의 지원은 청소년의 진로준비행동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다(김성환·박상 2008; 김효진·장윤옥 2011; 송재영·이현림 2004). 부모가 자녀의 미래설계에 대한 조언을 하거나 함께 직업에 대한 탐색을 하는 등의 활동을 하는 경우 청소년

년의 진로준비행동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며(강란혜·이미정 2011; 이상준 외 2008; 이현주 2001), 부모로부터 도구적 조력을 많이 받는다고 생각하는 학생일수록 진로준비 행동 수준이 높다(안혜경 2008). 또한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을수록 진로성숙도가 향상되어 진로준비행동도 더 활발히 이루어진다(유영미·문승태 2005). 경제적 빈곤은 청소년기 발달과업을 성취하는 데 부정적인 영향을 주며(이시연·박은미 2009) 진로준비행동 수준에도 영향을 미친다(구인회 외 2009).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진로준비행동 잠재프로파일 분류에 영향을 주는 진로지도 경험과 개인특성변인을 고려하여, 본 연구에서 구체적으로 살펴볼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 연구문제 1. 전문계 고등학교 졸업자를 대상으로 진로준비행동 잠재프로파일은 몇 개의 유형으로 구분되며, 분류된 잠재프로파일의 특징은 어떠한가?
- 연구문제 2. 전문계 고등학교 졸업자를 대상으로 분류된 진로준비행동 잠재프로파일과 고등학교 때 받은 진로교육경험 및 개인·가정변인의 관련성은 어떠한가?

Ⅲ.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에서는 한국고용정보원에서 수집한 고졸자 취업진로조사(High School Graduates Occupational Mobility Survey, 이하 HSGOMS) 자료를 사용하였다. HSGOMS는 2011년에 공개된 것으로 전문계고 졸업자를 대상으로 교육과 노동시장 연구를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데 목적이 있는 자료이다. 1단계 예비조사로 전문계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하여 수학능력시험을 신청한 학생, 즉 진학의사가 있는 학생을 제외하고, 취업대상이 되는 미진학 전문계고 졸업자를 대상으로 마스터표본을 정한 후, 2단계 본조사에서 지역, 고교계열, 성별로 층화표집하였으므로 미진학 전문계 고등학교 졸업생을 대표하는 자료이다(한국고용정보원 2011). 본 연구에서는 HSGOMS 자료의 표본 5,281명을 분석에 이용하였다.

〈표 2〉 진로준비행동 경험 세부항목 내용

항 목
(1) 내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직업에 대해 인터넷을 통해 검색해 본 적이 있다.
(2) 내가 관심 있는 직업을 가진 사람에게 연락(이메일, 전화 등)을 해 본 적이 있다.
(3) 내가 관심 있는 직업에 대한 동영상이나 TV프로그램을 본 적이 있다.
(4) 내가 관심 있는 직업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을 만나 이야기 해 본 적이 있다.
(5) 나의 진로 문제와 관련하여 자발적으로 상담을 받아 본 적이 있다.
(6) 진로와 관련하여 나의 적성이나 흥미, 성격 등을 알아보기 위한 검사를 받은 적이 있다.
(7) 원하는 직업에서 요구하는 능력을 갖추기 위해 학원수강이나 자격증을 준비한 적이 있다.

2. 측정변인

1) 종속변인

본 연구에서는 종속변인으로 전문계 고등학교 졸업생의 진로준비행동 프로파일을 분류하기 위해 ‘고등학교 재학시 자신의 진로와 관련하여 아래 행동들을 해보신 경험은 얼마나 되십니까?’에 대한 질문의 각 항목에 대하여 5점 척도로 (1=전혀 없음, 2=거의 없음, 3=보통, 4=약간 있음, 5=매우 많음) 응답한 문항을 사용하였다. 각 문항의 구체적인 내용은 〈표 2〉와 같다.

2) 독립변인

분류된 잠재프로파일에 영향을 주는 독립변인은 크게 개인수준, 학교수준, 가족수준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먼저 개인특성변인으로 성별과 고등학교 졸업 이전에 취업목표가 있었는지 여부를 사용하였다. 남자는 1, 여자는 0으로 코딩하였으며 남·여 비율은 각각 54.9%, 45.1%였다. 고등학교 졸업 이전에 취업목표가 있었는지는 목표를 이루기 위한 정보탐색 이상의 노력을 한 적이 있는지를 묻는 문항이며, 있었다고 응답한 비율이 34.7%, 없었다고 응답한 비율이 56.3%였다.

학교수준 변인으로는 졸업한 고등학교에서의 성적과 고등학교에서의 진로교육에 대한 문항들을 사용하였다. 졸업한 고등학교에서 성적은 5점 척도로 (1=상위권, 2=중상위권, 3=중위권, 4=중하위권, 5=하위권) 측정한 것을 해석을 용이하게 하기 위

하여 역코딩하였으며, 평균은 3.057, 표준편차는 1.106이었다. 고등학교에서의 진로 교육 경험과 관련된 문항들은 ‘졸업한 고등학교에서 받은 진로지도에 해당하는 것에 표시해 달라’는 질문에 여섯 가지 하위항목별로 경험여부를 응답하도록 한 자료이며 각 항목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표 3>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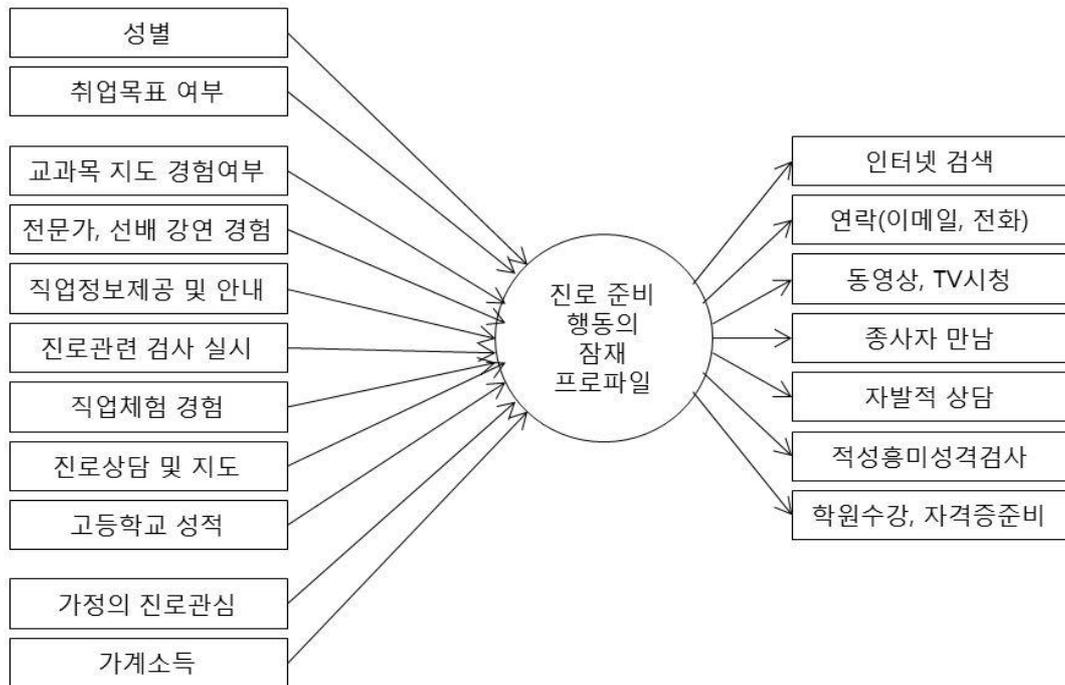
가정수준 변인으로는 진로에 대한 가정의 관심과 가계소득을 묻는 변수를 사용하였다. 진로에 대한 가정의 관심은 고등학교 재학 당시 평소 가정에서 진로와 관련된 대화를 얼마나 하는지 그 빈도를 5점 척도로(1 = 전혀 없다, 2 = 1년에 1~2번, 3 = 한 달에 1~2번, 4 = 일주일에 1~2번, 5 = 거의 매일) 표시한 두 문항이며, 평균은 2.857, 표준편차는 0.699이다. 가계소득은 설문 당시 부모님의 월평균 총 소득이 어느 정도인지 9단계로(0 = 없음, 1 = 100만원 미만, 2 = 100~200만원 미만, 3 = 200~300만원 미만, 4 = 300~400만원 미만, 5 = 400~500만원 미만, 6 = 500~600만원 미만, 7 = 600~1000만원 미만, 8 = 1,000만원 이상) 표시한 문항을 사용하였으며, 평균은 2.983, 표준편차는 1.334이다.

3. 연구모형

위에서 설명한 종속변인과 독립변인을 포함한 연구모형은 <그림 1>과 같다. 이 연구모형과 같이 전문계 고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진로준비행동의 잠재프로파일을 분류하고, 분석으로 얻은 각각의 잠재프로파일과 고등학교에서의 진로교육경험 및 개인 특성변인의 관련성을 검증할 것이다.

<표 3> 고등학교에서 받은 진로지도 경험의 문항내용

항 목
(1) 진로와 직업 등 교과목을 통한 진로지도
(2) 진로 관련 강연 (전문가, 선배 등)
(3) 직업정보 제공 및 안내
(4) 진로관련 검사 (적성, 흥미검사) 실시
(5) 현장학습이나 견학 등의 직업체험 경험
(6) 졸업 후 진로와 관련된 진로상담 및 지도



〈그림 1〉 연구모형

4. 분석방법

진로준비행동에 대해 학생들이 응답한 패턴에 따른 잠재프로파일 개수를 정하고 각 잠재프로파일에 대한 진로지도경험과의 관련성을 검증하기 위해 Mplus 6.0 프로그램을 사용하였다. 잠재프로파일의 수를 정하기 위한 지수로 AIC(Akaike Information Criterion)(Akaike 1974)와 BIC(Bayesian Information Criterion)(Schwartz 1978), 그리고 분류의 질을 알아보기 위해 Entropy값을 사용하였다.

AIC와 BIC는 다음과 같이 계산된다.

$$AIC = -2\ln(L) + 2p \quad (1)$$

$$BIC = -2\ln(L) + p \ln N \quad (2)$$

앞의 식에서 $\ln(L)$ 은 로그 우도값, p 는 추정 모수의 수, N 은 표본의 크기를 의미한다. 우도값은 모형과 자료 사이의 부합도를 나타내는 값으로 보통 높을수록 자료와의 부합도가 양호한 것으로 해석되는데 여기서는 자연로그를 취하고 -2 를 곱하였으므로 그 값이 작을수록 부합도가 양호하다고 해석할 수 있다. 두 지수에 모두 추정 모수의 수를 더해주므로 AIC와 BIC는 설명력과 간명성을 모두 고려한 지수가 된다. 그러나 이 두 지수의 값만 보고 모형을 비교하면 표본크기가 클수록 복잡한 모형을 선택하게 될 가능성이 있으므로(Jedidi et al. 1997) 다른 적합도지수도 함께 고려하는 것이 필요하다. Entropy(Ramaswamy et al. 1993)는 각 하위집단을 분명하게 분류하였는지 분류정확도를 나타내는 값으로(Wedel & Kamakura 1998), 다음과 같은 식으로 표현할 수 있다.

$$Entropy_K = 1 - \frac{\sum_i \sum_k -\hat{p}_{ik} \ln(\hat{p}_{ik})}{n \ln(K)} \quad (3)$$

\hat{P}_{ik} 는 잠재프로파일 k 에 속한 개인 i 의 조건부확률을 의미하고, n 은 표본크기, K 는 잠재프로파일의 수이다.

Entropy값은 0에서 1의 범위를 가지며 1에 가까울수록 분류가 정확함을 의미한다(Kreuter et al. 2008). 본 연구에서는 설명력과 간명성을 고려하는 지수인 AIC와 BIC, 잠재프로파일의 분류가 명확한지 고려하는 Entropy, 그리고 각 잠재프로파일의 개수를 구성하는 비율이 해석가능한지를 고려(Collins & Lanza 2010)하여 잠재프로파일의 수를 정한 후, 독립변수를 추가하여 조건모형을 개발하였다. 이때 추정되는 독립변수의 계수는 로짓계수이다. 독립변수를 추가한 조건모형에서도 잠재프로파일의 수가 동일하고 유형이 유사한지 앞의 지수를 이용하여 확인하였다.

IV. 연구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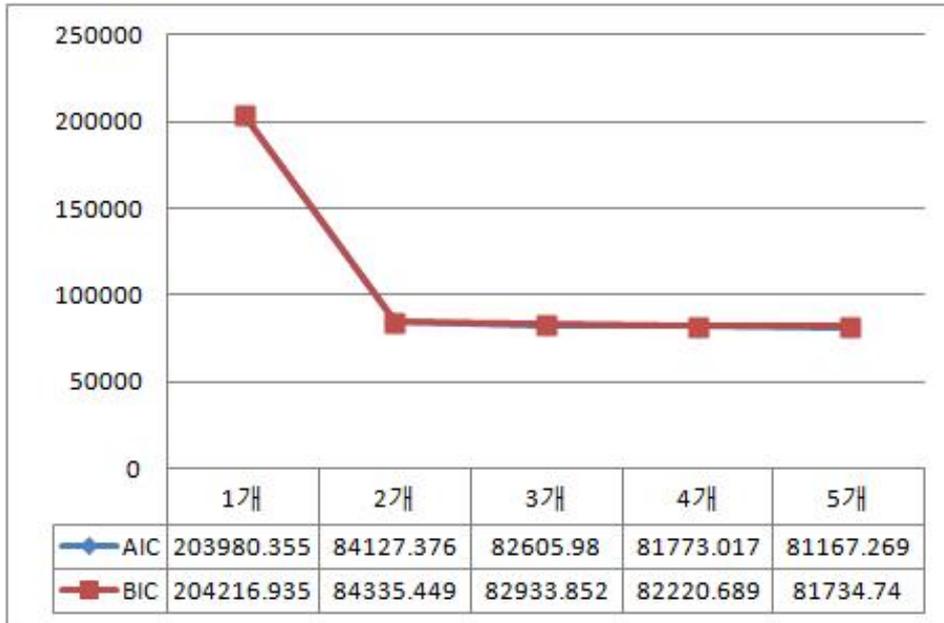
전문계 고등학교 졸업자의 진로준비행동 잠재프로파일과 학교에서 받은 진로교육의 관련성을 살펴보기 전에 기술통계 결과를 제시하였다. 학교에서의 진로교육경험 여부를 묻는 여섯 문항과 성별, 취업목표 유무는 이분변수에 해당한다.

〈표 4〉 연구모형에서 쓰인 변수들의 기술통계 및 응답비율 (N = 5,28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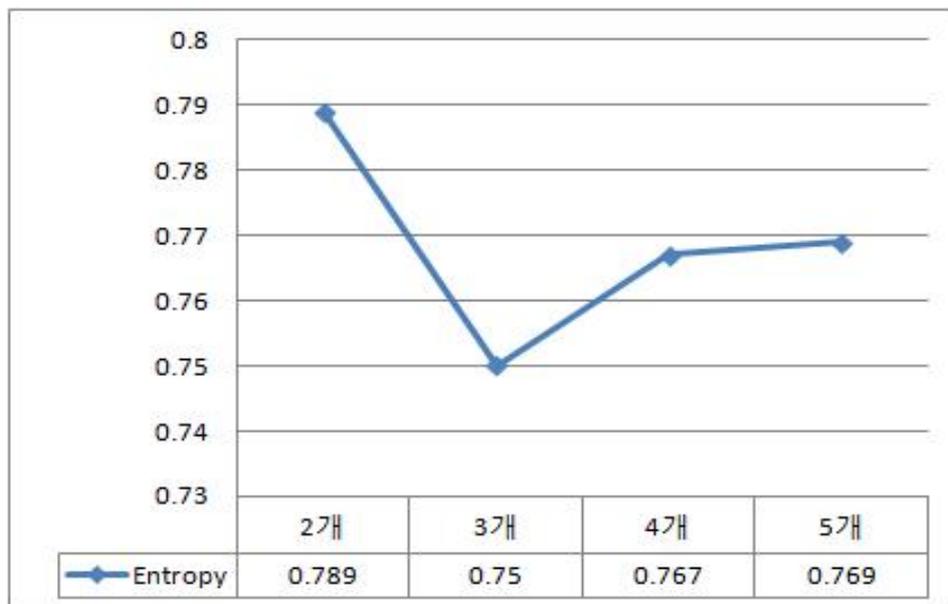
	변 수	평균	표준 편차	경험 (%)	무경험 (%)
진로준비 행동	인터넷 검색	3.36	1.15	-	-
	관심직업인에게 이메일이나 전화	2.33	1.18	-	-
	관심직업에 대한 동영상·TV	2.84	1.20	-	-
	관심직업 종사자 만나 이야기	2.38	1.20	-	-
	자발적으로 진로상담	2.40	1.17	-	-
	적성 흥미 성격 검사	2.76	1.19	-	-
	학원수강이나 자격증 준비	2.98	1.24	-	-
학교에서 진로지도 경험 여부 (1 = 경험)	교과목을 통한 진로지도	-	-	84.4	15.6
	진로 관련 강연	-	-	78.5	21.5
	직업정보 제공 및 안내	-	-	89.5	10.5
	진로관련 검사(적성, 흥미검사)	-	-	85.2	14.8
	직업체험 경험	-	-	77.6	22.4
	진로상담 및 지도	-	-	68.4	31.6
개인 및 가정 관련 변수	성별(1 = 남)	-	-	남 54.9	여 45.1
	취업목표 유무(1 = 유)	-	-	유 43.7	무 56.3
	고등학교 성적	3.06	1.11	-	-
	가정의 진로관심	2.86	0.70	-	-
	가계소득	2.98	1.33	-	-

1. 잠재프로파일의 수 결정

진로준비행동의 잠재프로파일 수를 결정하기 위해서 잠재프로파일을 1개부터 5개 까지 분류했을 때, 산출되는 지수를 살펴보았다. 먼저 AIC와 BIC의 변화는 〈그림 2〉와 같다. 〈그림 2〉를 보면 잠재프로파일의 수가 증가 할수록 지수가 감소하지만 2개 일 때부터 거의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그림 3〉의 잠재프로파일 수에 따른 Entropy¹⁾값을 보면 잠재프로파일의 수가 2개일 때 가장 1에 가까운 값을 보인다. 따라서 잠재프로파일의 수를 2개로 정하였다.



〈그림 2〉 잠재프로파일 수에 따른 AIC와 BIC 값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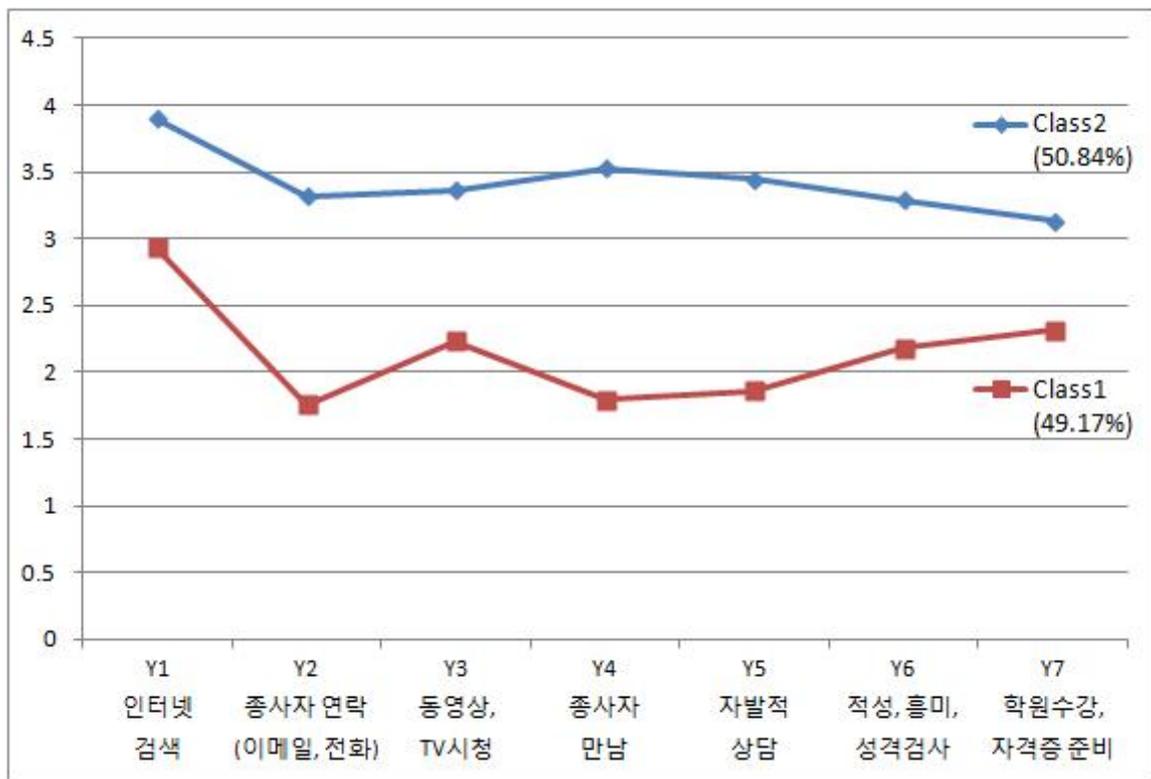


〈그림 3〉 잠재프로파일 수에 따른 Entropy 값 변화

1) 잠재프로파일의 수가 1개일 때는 Entropy 값이 산출되지 않는다.

2. 분류된 잠재프로파일의 형태

분류된 2개의 잠재프로파일 형태는 <그림 4>와 같다. 첫 번째 집단에는 약 49%의 학생이 속하며, 인터넷검색, 동영상 및 TV시청 등 일방적 매체를 이용한 정보탐색활동이 종사자와 연락하거나 만나는 활동에 비해 활발하다. 이들은 인터넷을 사용하여 정보검색을 하는 활동을 상대적으로 많이 하므로 이러한 특성을 가진 잠재프로파일을 ‘소극적 정보탐색 집단’이라고 이름 붙였다. 두 번째 집단에는 약 51%의 학생이 속하며 첫 번째 집단에 비해 모든 항목에서 높은 진로행동수준을 보인다. 첫 번째 프로파일과 비교했을 때 종사자 만남이나 자발적 상담을 하는 행동의 수준이 높게 나타났으며 전체적으로 높은 수준의 진로준비행동을 하므로 ‘적극적 정보탐색 집단’이라고 이름 붙였다.



<그림 4> 잠재프로파일의 형태

3. 진로준비행동 잠재프로파일과 독립변인의 관련성

두 가지로 분류된 진로준비행동 잠재프로파일과 독립변수들 사이의 연관성을 보기 위해 앞의 모형에 독립변수를 추가한 조건모형을 개발하였다. 독립변수를 추가하지 않은 무조건모형과 조건모형의 분석결과가 유사한지 앞에서 설명한 지수로 확인한 결과, 두 모형은 잠재프로파일의 수와 그 유형이 매우 유사하였다.

조건모형에서는 첫 번째 잠재프로파일인 ‘소극적 정보탐색 집단’을 기준집단으로 하여 ‘적극적 정보탐색 집단’과 비교하였다. <표 5>는 로지스틱 분석결과를 정리한 것이다. 먼저 응답자가 고등학교 재학 당시 받았던 진로교육경험과 잠재프로파일의 관계를 살펴보았다. 설문지에 응답한 전문계 고등학교 졸업자들이 고등학교에서 ‘진로와 직업’ 교과목을 통해서 진로지도를 받은 경험이 있는지는 진로준비행동 잠재프로파일과 유의미한 관련이 없었다. 학교에서 전문가나 선배의 진로관련 강연을 들은 적이 있는 학생은 소극적 정보탐색 집단에 비해서 적극적 정보탐색 집단에 속할 확률이 높았다. 학교에서 직업정보를 제공받거나 안내받은 경험이 있는 응답자는 다른 변수의 영향을 통제하였을 때 적극적 정보탐색 집단에 비해 소극적 정보탐색 집단에 속할 확률이 높았다. 적성검사나 흥미검사 등 진로와 관련된 검사를 받은 경험이나 직업체험경험 등은 진로준비행동 잠재프로파일과는 유의미한 관련이 없었다. 졸업 후 진로와 관련된 진로상담이나 지도를 받은 경험이 있는 학생들은 소극적 정보탐색 집단보다 적극적 정보탐색 집단에 속할 확률이 높았다.

진로준비행동 집단분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개인특성변인과 진로준비행동 프로파일의 연관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남학생은 여학생에 비해 소극적 정보탐색 집단보다 적극적 정보탐색 집단에 속할 확률이 높았다. 가정에서 적성과 흥미, 미래직업, 학교나 학과선택에 대한 대화를 많이 나눌수록 소극적 정보탐색 집단보다는 적극적 정보탐색 집단에 속할 확률이 높았으며, 가정에서의 학생진로에 대한 관심 점수가 1단위 증가하면 증가 전에 비해 승산이 1.738배로 증가하였다. 고등학교 재학 당시 취업목표가 있는 학생일수록 소극적 정보탐색 집단보다는 적극적 정보탐색 집단에 속할 확률이 높았다. 고등학교 성적이 상위권에 속할수록 소극적 정보탐색 집단보다는 적극적 정보탐색 집단에 속할 확률이 높았으며, 고등학교 성적변수의 1점이 증가하면 증가하기 전보다 승산이 1.157배로 증가하였다. 진로준비행동의 잠재프로파일 분류에 부모님 총소득의 영향은 유의미하지 않았다.

〈표 5〉 진로준비행동 잠재프로파일 분류와 예측변수의 관련성

비교집단	기준집단	독립변인	계수	표준오차	t	승산비
적극적 정보탐색 집단	소극적 정보탐색 집단	‘진로와 직업’ 과목지도	0.055	0.136	0.407	1.057
		전문가, 선배 강연	0.580	0.121	4.777***	1.786
		직업정보제공 및 안내	-0.485	0.186	-2.611**	0.616
		진로관련 검사 실시	0.157	0.148	1.060	1.170
		직업 체험 경험	0.173	0.112	1.534	1.189
		진로상담 및 지도	0.458	0.096	4.756***	1.581
		성별(1 = 남)	0.200	0.080	2.503*	1.221
		가정에서 진로관심	0.553	0.058	9.470***	1.738
		취업목표(1 = 있음)	0.911	0.079	11.499***	2.487
		고등학교 성적	0.146	0.036	4.010***	1.157
		가계소득	-0.036	0.030	-1.204	0.965

* p < .05, ** p < .01, *** p < .001

V. 결론 및 논의

본 연구는 전문계 고등학교 졸업자의 진로준비행동 잠재프로파일을 분류하고 그들이 고등학교 재학 당시 받은 진로교육경험과 어떤 관련성이 있는지 검증한 것이다. 먼저, 잠재프로파일은 ‘소극적 정보탐색 집단’과 ‘적극적 정보탐색 집단’의 두 집단으로 분류되었다. ‘소극적 정보탐색 집단’의 잠재프로파일은 관심 있는 직업에 대해 인터넷으로 검색하는 활동의 빈도가 가장 많았고, 동영상이나 TV프로그램을 보는 활동, 적성과 관련한 검사, 학원수강이나 자격증취득 준비경험이 그 뒤를 이었으며, 직업종사자에게 연락을 하거나 만나서 이야기를 하거나 자발적으로 상담을 받아본 적은 거의 없다는 특징이 있다. 이 집단은 인터넷이나 TV, 동영상을 통해 정보를 수집하는 활동이 두드러지며, 실재 사람들과 직접 대면하는 활동을 거의 하지 않고 흥미·성격 검사를 받거나 학원수강 등의 진로준비행동을 하고 있다. ‘적극적 정보탐색 집단’의 잠재프로파일의 형태는 인터넷 사용이 다른 진로준비 활동에 비해 높게 나타나며 인터넷 검

색 이외의 행동에서는 두드러진 특징 없이 전반적으로 높은 수준을 보인다. 이들은 관심 있는 직업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을 만나거나 진로문제와 관련하여 자발적으로 상담을 받는 등 사람과 직접 대면하는 진로탐색 활동에서도 소극적 정보탐색 집단보다 높게 나타난다.

분류된 2개의 잠재프로파일과 전문계 고등학교에서 받은 진로지도 경험의 관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진로와 직업’등의 교과목을 통한 진로지도를 받았는지 여부는 해당 교과에 대한 학생의 선택 여부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며, 진로준비행동 잠재프로파일 분류에 유의미한 영향을 주지 않았다. 학교에서 적극적으로 전문가나 선배를 섭외하여 진로 관련 강연을 들을 기회를 제공받은 학생은 ‘소극적 정보탐색 집단’보다 ‘적극적 정보탐색 집단’에 속할 확률이 높았다. 내러티브를 통한 진로교육현황에 대한 연구에 의하면, 전문계 고등학교 재학 당시 학교에서 전공과 관련된 외부강사를 초빙해 현장경험을 듣는 강의를 들은 후, 자신이 생각하고 있던 진로에 대해 현실적으로 생각해보는 기회가 되었다는 사례(임언 외 2008)가 있었다.

그러나 학교에서 직업정보를 제공받은 경험이 있는 학생은 ‘적극적 정보추구 집단’보다 ‘소극적 정보탐색 집단’에 속할 확률이 높았다. 학교현장에서 진로교육의 일환으로 의무적으로 학생들에게 정보를 제공하거나 안내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학생들의 만족도는 높지 않다(이상준 외 2008).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제공되는 정보가 학생 개개인에 맞추어 제공되는 것이 아니라 안내 책자로서 일방적으로 배부되는 경우가 많고 이렇게 제공된 진로정보는 개인수준의 요구를 충족시킬 수 없기 때문에, 학생들은 부족함을 채우기 위해 자료를 제공받을 수 있는 활동을 하게 된다.

적성·흥미검사를 비롯해 진로에 관련된 검사를 받은 적이 있는지 여부는 잠재프로파일 분류에 유의미한 영향을 주지 않았다. 학교에서의 진로지도가 적성·흥미검사에 치우쳐 있는데 비해 사후관리가 매우 미흡하다는 것(조성심·주석진 2010)을 미루어 볼 때, 진로관련 검사를 받았다는 사실 자체가 진로준비행동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기는 힘들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현장학습이나 직업체험경험도 잠재프로파일 분류에 유의미한 영향을 주지 못했으며, 이 또한 사후관리 없이 간헐적인 체험활동이 이루어지는 현행 진로교육(임언 외 2008)의 문제점을 드러낸다고 할 수 있다. 고등학교 재학 당시 졸업 후의 진로와 관련된 진로상담을 받아봤다는 학생은 ‘소극적 정보탐색 집단’보다 ‘적극적 정보탐색 집단’에 속할 확률이 높았다. 진로준비행동에 상담활동이 의미 있는 영향을 끼친다고 할 수 있으며, 개인이 자신을 이해하고 주위 환경을 고려하여 자

신에게 적합한 진로를 선택하고 계획을 세우며 생산적인 사회인으로 공헌할 수 있는 기틀을 만드는 데 일조한다는 진로상담의 목적(김충기 2000)과 부합하는 결과이다.

잠재프로파일 분류에 영향을 주는 개인특성변인에 대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성별에 있어서는 남학생이 ‘적극적 정보탐색 집단’에 속할 확률이 여학생보다 높았다. 이는 진로발달에 있어서 성별에 따른 차이가 있으며(이현정·김기석 2008; 최영미 1998; Betz & Hackett 1986), 특히 전문계 고등학교의 경우 남학생의 진로준비행동이 여학생보다 활발하다는 입장을 지지하는 결과이다. 취업목표 여부와 관련해서는 전문계 고등학교 재학 당시 취업목표가 없었다는 학생보다 취업목표가 있었다는 학생일수록, 그리고 고등학교 재학 때 성적이 상위권일수록 다양한 유형의 진로준비 행동에서 적극성을 보임을 알 수 있다. 이는 목표설정이 진로발달과업에서 성취과제로 작용하여 영향을 미치며(김경옥 2009; Lent et al. 1994), 학생의 교육적 성취는 진로발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김희자 2008)와 일맥상통한다.

가정에서 부모님이 자녀의 진로에 대한 이야기를 하거나 정보탐색활동을 하는 경우, 자녀도 이에 영향을 받아서(강란혜·이미정 2011; 안혜경 2008; 이상준 외 1008; 이현주 2001) ‘적극적 정보탐색 집단’에 속할 확률이 높았으며, 이는 부모의 진로에 대한 관심이 자녀의 진로발달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의미한다. 반면, 가정의 소득 수준은 진로준비행동 잠재프로파일에 유의미한 영향을 주지 못하였는데,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을수록 진로성숙도가 향상(구인회 외 2009; 유영미·문승태 2005)되지만, 심리적 구인인 진로성숙도가 행동적 측면을 유발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김봉환 1997; 박고운·이기학 2007; 어윤경 2010; Phillips & Paziienza 1988), 추후 진로와 관련한 심리적 구인과 행동적 측면을 매개하는 변인에 대한 연구를 제안할 수 있겠다.

본 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전문계 고등학교의 진로교육에 시사하는 바는 크게 두 가지이다. 첫 번째는 학생들의 진로지도가 연속선상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진로상담을 경험한 학생의 진로준비행동 프로파일은 ‘적극적 정보탐색 집단’에 속할 확률이 높으며, 학교에서는 진로지도를 목적으로 흥미·적성 검사가 많이 쓰이고 있다. 진로관련 검사의 경우, 진로지도의 연속선상 자기 자신에 대해 알아가는 도구임에도 불구하고 검사결과가 이후 진로지도와 잘 연결되지 않고 있는데, 검사와 상담이 별개로 이루어지는 것보다는 이 방법들이 유기적으로 연결될 때 더욱 효과적인 진로교육활동이 될 것이다. 현재 학교현장에서는 검사나 상담에 대한 전문지식이 없는 여러 가지 전공의 교사들이 검사를 실시하기 때문에 검사가 ‘실시

하기만 하면 되는 것'으로 여겨질 가능성이 있다. 검사시행 후 검사로부터 얻은 정보를 상담교사가 전문지식을 활용하여 진로지도에 활용한다면 검사시행이 더욱 의미 있는 시간이 될 것이며, 진로상담이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이루어졌을 때 학생들의 진로에 대한 행동변화를 효과적으로 이끌 수 있을 것이다.

두 번째는 진로정보 탐색에 있어서 전달체계를 다양하게 해야 한다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 도출된 잠재프로파일 중 '소극적 정보탐색 집단'은 상호작용적 매체보다 비상호작용적 매체를 통한 진로준비행동이 많이 일어났다. 비상호작용적 매체는 인쇄매체를 통한 정보, 시청각매체를 통한 정보 등이 포함되고, 상호작용적 매체는 직업 인사와 만남, 인사 관리자 방문하기, 직무분석 등을 통해 학생스스로 정보를 수집하는 것이 포함된다(한국진로교육학회 2011). 진로준비행동의 잠재프로파일 분류에서 '소극적 정보탐색 집단'에 속하는 학생들은 사람을 직접 만나거나 연락하는 행동을 거의 안함으로, 진로정보의 출처가 스스로의 적극성이 많이 요구되지 않는 정보탐색에 치우쳐 있으며 그나마도 '적극적 정보탐색 집단'보다 낮은 수준에 있다. '소극적 정보탐색 집단'의 문제점은 단순히 진로준비행동이 저조하다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본인의 적극성이 필요한 진로준비행동은 하지 않으려는 데 있다. 따라서 학교에서는 진로정보의 전달체계에 있어서 비상호작용적 매체뿐만 아니라 상호작용적 매체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균형 잡힌 정보탐색을 도울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진로준비행동과 전문계 고등학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진로지도경험의 연관성에 대한 연구로 진로준비행동의 잠재프로파일 분류는 여러 종류의 진로교육경험이 각기 다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연구에서 쓰인 모형은, 변수중심적 접근과는 달리 개개인의 응답반응을 중심으로 잠재프로파일을 분류하고 이에 영향을 미치는 진로교육 경험에 대해 알아보았다는 데 의의가 있다. 그 중 선배나 직업현장 종사자의 진로관련 강연이나 진로상담경험, 학교에서의 직업정보제공 여부, 성별, 취업목표 여부, 고등학교 성적, 그리고 가정에서의 진로관심이 진로준비행동을 예측하는 유의미한 변인이었다.

본 연구에서는 진로준비행동의 세 가지 구성 요소 중 '직업세계에 대한 정보수집 활동'과 '그에 대한 도구를 마련하고 있는지'에 대한 것을 중점적으로 다루었고, '목표달성을 위한 노력'에 대한 부분이 측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추후로는 '실제로 시간과 노력을 들이고 있는지'에 대한 정보를 함께 고려하는 연구를 제안할 수 있겠다. 또한 시간에 따른 변화를 고려하지 못하였고, 전문계 고등학생만을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다른

계열 고등학생 집단과 비교하지 못 했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으며, 추후 진로준비행동과 예측변수의 종단적 변화를 고려한 연구가 필요하다.

참고문헌

- 강원덕·안귀여루. 2010. “성취동기, 내재적 직업가치, 진로장벽이 고등학생의 진로성숙 및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건강》 15(1): 161-175.
- 고재성·서현주·정시원·정명진. 2008. 《전문계 고등학생을 위한 진로상담가이드 개발 연구》 한국고용정보원 진로교육센터.
- 교육과학기술부. 2010. 고등학교 직업교육 선진화 방안 발표자료. 교육과학기술부 홈페이지. <http://www.mest.go.kr/web/1105/ko/board/view.do?bbsId=147&boardSeq=16872> 에서 8월 27일 인출.
- 교육인적자원부. 2007. 《2007 개정교육과정 개요》.
- 구인회·박현선·정익중·김광혁. 2009. “빈곤과 아동발달의 관계에 대한 종단분석.” 《한국사회복지학》 61(1): 57-79.
- 김경옥. 2009. “자기효능감과 불확실성에 대한 인내력 부족이 진로준비행동 및 진로결정수준에 미치는 영향: 진로성취목표의 영향을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21(2): 501-519.
- 김성환·박상우. 2006. “청소년의 가정환경이 진로선택에 미치는 영향.” 《지역사회연구》 16(3): 199-214.
- 김충기. 2000. 《진로교육과 진로상담》 서울: 동문사.
- 김효진·장운옥. 2011. “공업고등학교 학생의 사회적 지지와 진로준비행동과의 관계에서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 《청소년학연구》 18(7): 1-32.
- 김희수. 2007. “교과목으로서의 진로교육 프로그램이 진로정체감, 진로결정수준과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효과 연구.” 《진로교육연구》 20(2): 35-46.
- 김희자. 2008. “청소년 빈곤과 진로성숙도, 교육포부.” 《보건과복지》 10: 87-106.
- 박고운·이기학. 2007. “진로결정 자율성수준과 진로준비행동과의 관계에서 진로 자기 효능감의 매개효과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9(2): 409-422.
- 박재은·이정애·이지연·정익중. 2011. “청소년기 애착이 진로성숙도와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 빈곤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청소년복지연구》 13(1): 93-116.
- 송재영·이현립. 2004. “대학생이 지각한 사회적 지지가 진로탐색행동에 미치는 영향.” 《상담학연구》 5(2): 393-407.

- 송현심 · 홍혜영. 2010. “사회적 지지, 진로결정 자율성이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 《상담학연구》 11(3): 1325-1350.
- 안혜경. 2008. 《희망, 부모지지, 진로장벽이 고등학생의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 동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어윤경. 2010. “진로성숙수준과 진로준비행동 실현의 관계: 의사결정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교육심리연구》 24(4): 1029-1046.
- 오호영 · 이지연 · 윤형한. 2007. 《진로교육지표조사》 한국직업능력개발원.
- 유미정 · 최애경. 2008. “고등학생의 사회적지지 및 자아정체감과 진로결정수준과의 관계.” 《한국진로교육학회》 18(2): 1-19.
- 유영미 · 문승태. 2005. “진로장벽,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이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전문대학 비서학 전공생을 중심으로.” 《상업교육연구》 19: 129-153.
- 이상준 · 김나라 · 윤여인 · 고재성. 2008. 《전문계 고교생의 진로연구》 한국직업능력개발원.
- 이시연 · 박은미. 2009. “빈곤청소년의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이 진로결정수준에 미치는 영향: 자아 존중감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청소년복지연구》 11(1): 141-159.
- 이제경 · 김동일. 2004. “한국대학생의 취업준비행동과 심리적 특성.” 《상담학연구》 5(4): 993-1016.
- 이현림 · 김순미 · 천미숙 · 최숙경. 2008. “대학생의 진로장벽 지각, 진로스트레스, 진로발달 및 진로준비행동에 관한 구조적 관계 분석.” 《진로교육연구》 21(4): 59-80.
- 이현정 · 김기석. 2008. “성격적 특성이 진로미결정과 직업탐색행동에 미치는 효과와 성별 조절효과.” 《산학경영연구》 21(1): 51-71.
- 이현주. 2001. “대학생의 심리사회적 특성과 진로탐색 활동의 인과관계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15(3): 257-280.
- 임언 · 정윤경 · 최동선 · 김나라 · 장명희 · 정명희 · 장석민. 2008. 《교육과정과 연계된 진로교육 운영 모델 구축: 총괄보고서》 한국직업능력개발원,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 임은미 · 이명숙. 2003. “대학생의 진로자기효능감과 진로준비행동 간의 관계 분석.” 《학생상담연구》 1: 101-113.
- 장석민. 2001. “학교현장에서의 진로교육 프로그램 개발과 활용.” 《진로교육연구》 14: 1-16.
- 조성연 · 이선순. 2006. “성인대학생의 진로결정수준 및 진로준비행동이 학업성취도에 미치는 영향.” 《진로교육연구》 19(1): 127-140.
- 조태영 · 이민순. 2009. “항공 운항서비스 전공 대학생의 직업성숙도와 진로준비행동에 관한 차이 연구.” 《한국항공경영학회지》 7(1): 69-86.
- 최동선. 2006. 《초·중등 교육과정에서의 진로교육운영방안》 한국진로교육학회 22차 춘계학술대회.

- 최영미. 1998. <진로결정수준과 진로행동의 네 가지 유형과 자아정체감의 관계>.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통계청. (2011.5.4). 2011 청소년 통계. http://epic.kdi.re.kr/epic/epic_view.jsp?menu=1&num=113504에서 2012년 8월 27일 인출.
- 한국고용정보원. 2011. <고졸자 취업진로조사 User's Guide> 한국고용정보원 고용조사분석센터.
- 한국진로교육학회. 2011. <선진패러다임을 위한 진로교육의 이론과 실제> (제2판). 서울: 교육과학사.
- 홍후조. 2008. “교과 통합적 진로지도를 위한 몇 가지 방안.” 콜로키엄 자료.
- Akaike, H. 1974. “A New Look at the Statistical Model Identification.” *IEEE Transactions on Automatic Control* 110: 716–723.
- Bergman, L.R. and D. Magnusson. 1997. “A Person–Oriented Approach in Research on Developmental Psychopathology.” *Development and Psychopathology*. Cambridge University Press.
- Betz, N.E. and F. Hackett. 1986. “Application of Self–Efficacy Theory to Understanding Career Choice Behavior.” *Journal of Social and Clinical Psychology* 4: 279–289.
- Blau. 1993. “Further Exploring the Relationship between Job Search and Voluntary Individual Turnover.” *Personnel Psychology* 46(2): 313–330.
- Collins, L.M. and S.T. Lanza. 2010. *Latent Class and Latent Transition Analysis: With Applications in the Social, Behavioral and Health Sciences*. New York: Wiley.
- Crites, J.O. 1981. *Career Counseling: Models, Methods and Materials*. New York: McGraw–Hill Book Co.
- Fenwick, T. 2001. *Sociocultural Perspectives on Learning through Work*. San Francisco: Jossey–Bass.
- Jedidi, K., H.S. Jagpa, and W.S. Desarbo. 1997. “Finite–Mixture Structural Equation Models for Response–Based Segmentation and Unobserved Heterogeneity.” *Marketing Science* 16: 39–59.
- Kanfer, R.W., C.R. Brown, and T.M. Kantrowitz. 2001. “Job Search and Employment: A Personality–Motivational Analysis and Meta–Analytic Review.” *Journal of Applied Psychology* 86(5): 837–855.
- Kreuter, F., T. Yan, and R. Tourangeau. 2008. “Good Item or Bad–Can Latent Class Analysis Sell?: The Utility of Latent Class Analysis for the Evaluation of Survey Questions.” *Journal of the Royal Statistical Society* 171(3): 723–738.
- Lent, R.W., S.D. Brown, and G. Hackett. 1994. “Toward a Unifying Social Cognitive

- Theory of Career and Academic Interest, Choice, and Performance.”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45: 79–122.
- OECD. 2004. *Career Guidance and Public Policy*. OECD.
- Phillips, S.D. and N.J. Paziienza. 1988. “History and Theory of The Assessment of Career Development and Decision Making.” in W.B. Walsh and S.H. Osipow(eds). *Career Decision Making* 1–13.
- Ramaswamy, V., W. DeSarbo, D. Reibstein, and W. Robinson. 1993. “An Empirical Pooling Approach for Estimating Marketing Mix Elasticities with PIMS Data.” *Marketing Science* 12: 103–124.
- Saks, A.M. and B.E. Ashforth. 2002. “Is Job Search Related to Employment Quality? It all Depends on the Fit.” *Journal of Applied Psychology* 87(4): 646–654.
- Schwartz, G. 1978. “Estimation Dimensions of a Model.” *Annals of Statistics* 6: 461–464.
- Slaney, R.B. 1988. “The Assessment of Career Decision Making.” in W.B. Walsh and S.H. Osipow(eds.), *Career Decision Making*. Hillsdale, NJ: Lawrence Erlbaum Associates.
- Super, D. 1953. “A Theory of Vocational Development.” *American Psychologist* 8(5): 185–190.
- Walsh, W.B. and R.O. Lewis. 1972. “Consistent, Inconsistent and Undecided Career Preferences and Personality.”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2: 309–316.
- Wedel, M. and W.A. Kamakura. 1998. *Market Segmentation: Conceptual and Methodological Foundations*. Boston, MA: Kluwer Academics.
- Winer, J.L. 1992. “The Early History of the Career Decision Scale.” *Career Development Quarterly* 40: 369–375.

<접수 2012/10/10 , 수정 2013/1/2 , 게재확정 2013/2/16>